



자산전략 주간 포인트 시즌 2.

1월 셋째 주 《사볼 만하다》

SK증권자산전략팀

채권전략. 윤원태 3773-8919, yunwt@skc.co.kr

경제환율. 안영진 3773-8478, youngjin.an@skc.co.kr

주식전략. 강재현 3773-9922, jaehyun.kang@skc.co.kr

퀀트전략. 황지우 3773-8072, jeewoo.hwang@skc.co.kr

주식시황. 조준기 3773-9996, junkee.cho@skc.co.k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자산시장 Point to Point

2

그림으로 보는 Top to Bottom

3

주간 Check Point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경제/금리

금리 환경은 계속 보수적, Macro Core view는 긍정 우위 유지

- 1) 금리는 다시 오름세, 2) 중국 정책 기대에 대한 실망감, 3) 지정학 불안 가중 등 연초 들어 위험자산시장 부진 지속. 특히 한국은 통화 가치 절하와 주가 조정의 폭이 가장 큰 편으로 분류되며 악재에 민감
- 1월의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금리 환경은 계속 보수적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 아직 Fed와 시장의 고리가 좁혀져야 할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 1월 말 FOMC 회의와 미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 발표라는 거대 이벤트까지 변동성이 높은 구간 예상
- 그러나 경기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 특히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소비, 생산, 주택 등)이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순환/가격 요인에 의한 수출 증가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등을 기반으로 Macro Core에 대해서는 긍정 우위 View 유지
- Top-down에서 아쉬운 점인 동시에 기대 요인은 중국. 나쁜 매크로가 재확인될수록 이연되어 온 확장 통화정책 가동 필요성도 높아짐

주식 전략

차주가 마지막 고비. 중국 실물 지표 대거 발표

- 미국 기술성장주들은 금방 조정 국면을 마무리하고 반등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조정 이어 갔음. 여기에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부진도 한 몫 했지만, 중국 부동산 및 경기 부진이 중쯔 파산 신청이라는 이벤트로 표면화 되기도 했고 대만 선거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졌던 영향도 있었다는 생각
- 차주 중국 실물 지표들이 대거 발표됨. 최근 중국 지표가 부진하면 국내 증시도 같이 흘러 내리는 모습 보이곤 했기에 차주가 증시 조정 국면의 마지막 고비일 것으로 보임. 대신 만일 차주까지 증시 조정 이어진다면 기술적으로는 저가 매수세 유입될 수 있는 레벨대가 될 것
- 당사는 이후 있을 중국 LPR 결정을 주목하고 있으며 만일 12월 중국 지표도 부진하다면 시장 기대대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음. 이번에 중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며 오히려 증시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SUN MON TUE WED THU FRI S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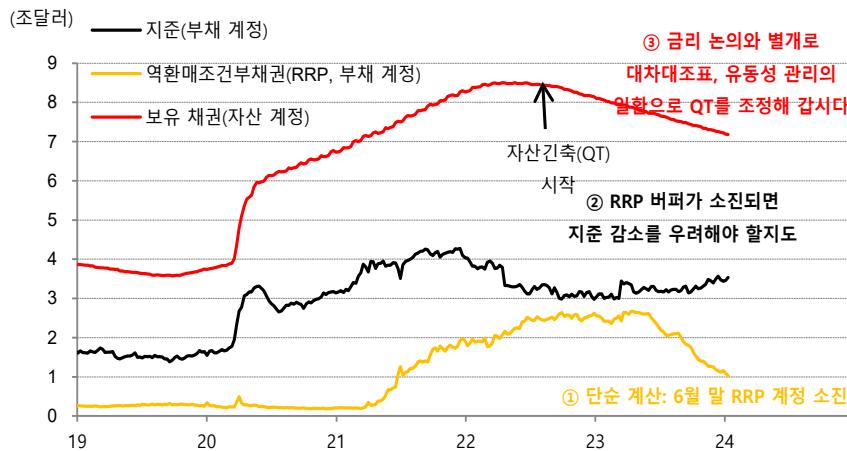
Part 1.

자산시장 Point to Point

FOMC(채권 수요)와 발행 계획(채권 공급)

- 1월 FOMC의 쟁점은 QT(양적긴축)의 감속 결정 여부. 지난 6일 로건 댤러스 연은 총재가 불을 지핀 이후 외신(WSJ)과 글로벌 IB들이 속속 1월 FOMC 결정설을 꺼내 들었기 때문
- 연준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 계정의 감소(QT)가 루틴화되어 있는 가운데 대변(부채 계정)에서는 지급 준비금과 역RP가 주로 매칭. 현재 역RP 감소세대로면 6월 말 소진 예상. 시간이 갈수록 지준에의 영향이 불가피. 이에 조기 대응의 일환으로 QT 조절 논의
- 이는 채권 수요와 관련된 것인 동시에 자금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봄 → QT 조정 논의 ⇨ 긍정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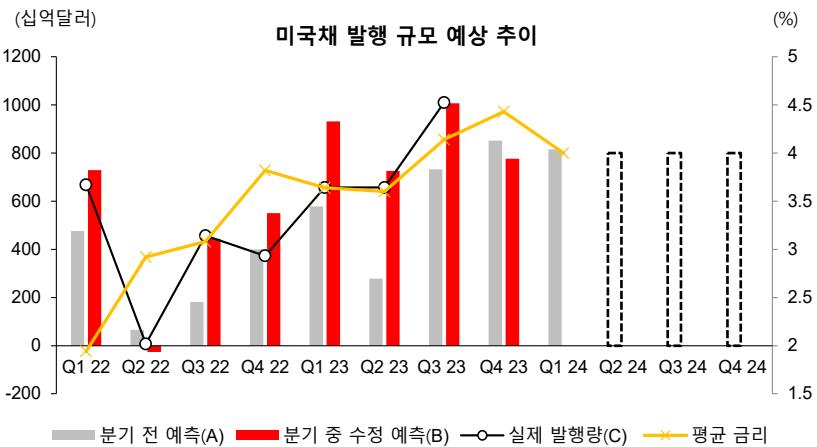
표면적으로 Fed의 금리 결정 논쟁 중. 이면엔 QT 조정 여부 등 유동성 관리도 관심



자료 : Fed, SK증권

- 미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 발표에서의 쟁점은 단연 늘릴지/줄일지 여부. 지난 3개월 전 당기(4Q23)와 차기(1Q24) 모두 기존 전망 대비 낮춰 롱 베팅(금리 하락)의 시발점이 된 바 있음
- 가속도의 차이가 있고 최근 장기물 입찰 수요가 비교적 무난했음을 고려할 때, 그 임팩트는 11월 초에 비할 바는 아닐 것
- 하지만 발행량을 늘린다는 계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시장 소화 여부에 따라 금리 상승 압력이 반영될 전망(부진→금리↑)

1월 말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 확인 필요. 1) (수정)증감 여부, 2) 시장 소화 여부



자료 : 미 재무부, SK증권

1. 금리에 영향을 미칠 1월 말 대형 이벤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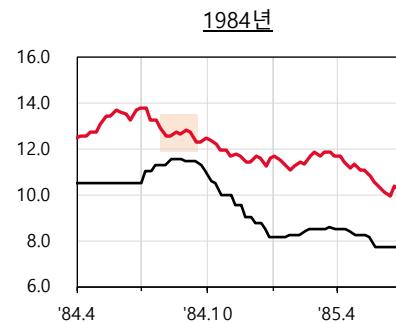
주식: 금리 상승 위험 남아는 있지만, 과한 경계 불필요

SK증권 리서치센터

- 채권 공급 이벤트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는 본래 경제적 상황에 따른 통화정책 경로를 더 크게 반영. 그렇기에 과거 미국 금리 인상 중단 이후 추가 금리 인상 위험이 없는 국면에서는 금리가 일정 수준의 레인지(인상 직후 급락시 저점 대비 **maximum +50bp**) 안에서 움직이는 박스권 흐름을 나타냈던 것. 지금으로 치면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4.2%를 크게 상향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말. 이는 곧 금리 상승 부담에 따른 글로벌 증시 조정은 마무리 되어 간다는 의미
- 월말 생각보다 미국채 발행량이 크거나 장기물 비중이 높아지면 추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는 있음. 그러나 작년 8월처럼 없었던 발행이 시작되며 새로운 공급 부담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하반기 금리 인하시 장기 금리 추가 하락 가능하기에 정부가 당장 장기물 비중을 급격히 늘릴 유인도 없음. 즉, 공급 이벤트 때문에 금리가 올라도 그 한계는 명확할 것이라는 생각. 이 이벤트에 대한 경계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로 인한 증시 추가 하락 위험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금리 인상 중단하면 장기 금리는 박스권 흐름. 올라도 금리 급락시 저점 대비 최대 +50bp 수준에 그쳤음

과거 미국 금리 인상 중단 이후 금리 인하기까지 금리 추이



2000년



미국 기준금리 (%)

미국 국채 10년 금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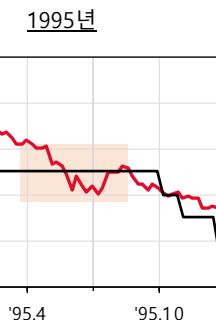
1984년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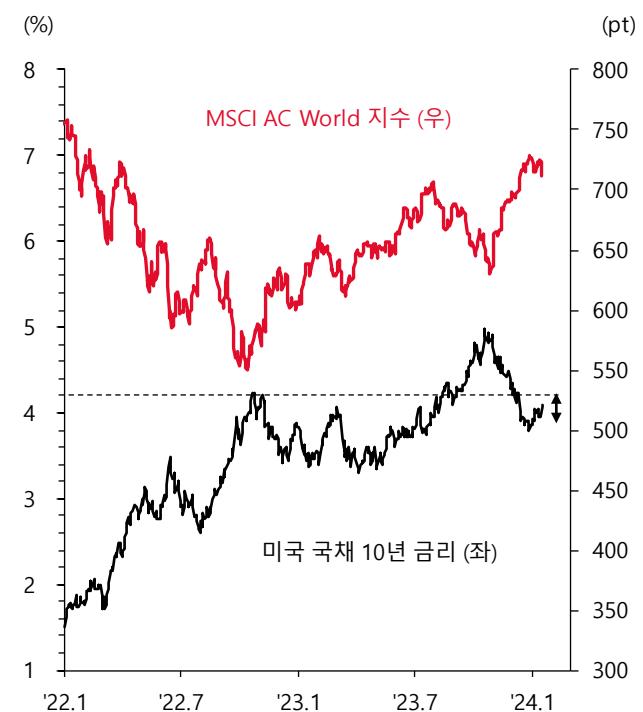
1989년



2009년



금리 상승 부담에 따른 증시 조정은 거의 마무리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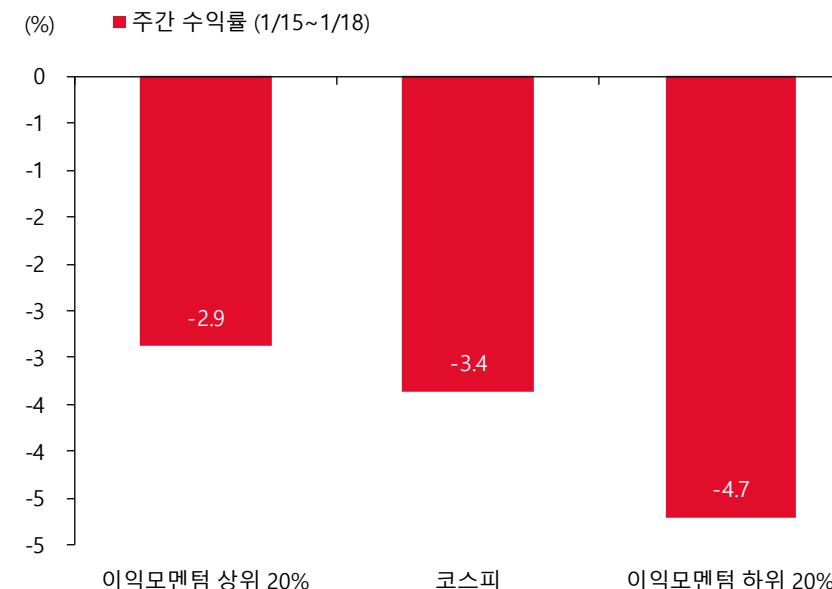
자료 : Refinitiv, SK증권

자료 : Refinitiv, SK증권

당장은 이익 모멘텀 활용하면서 낙폭 과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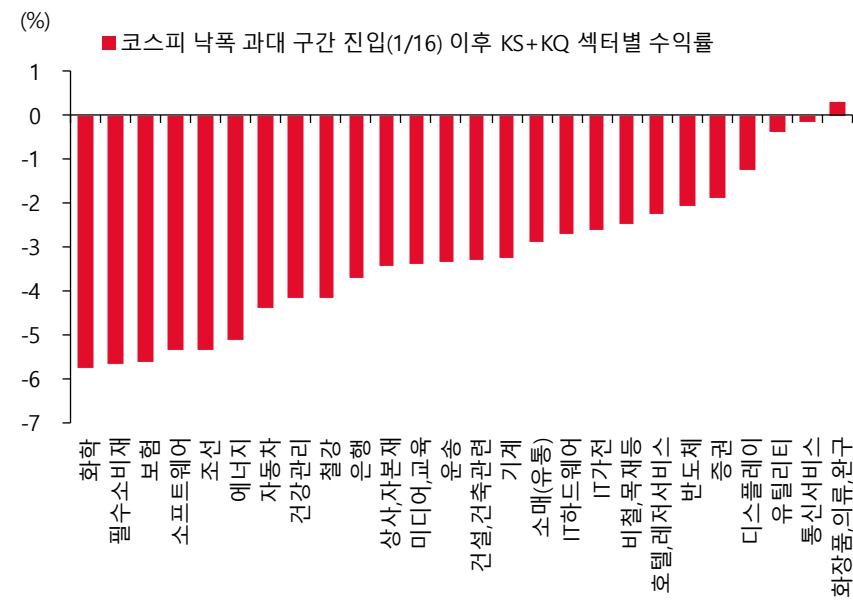
- 그래도 금리發 증시 추가 하락 위험이 남아 있다는 점에 대비는 하고 싶고, 증시가 V자 반등을 강하게 이어 나갈 동력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 이 때는 이익 모멘텀을 잘 활용할 필요. 최근 증시 급락 구간에서도 시장 대비 선방한 종목들이 있다면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것들이었음. 코스피 200 지수 내 이익 모멘텀 점수 상위 20% 베스트의 금주 수익률은 -2.9%를 기록하며 3.4% 하락한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 이익 모멘텀 하위 20% 베스트 시장보다 부진한 성과 기록
- 과매도 구간에서의 낙폭 과대 업종은 지금부터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지수의 강한 반등 나올 수 있을 때 투자 성과가 더 좋을 것으로 판단
- 분명 현재 코스피는 과매도권에 위치해 있어 진입시 기회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며 추가 하락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다만 더 내리지 않는 것과 다시 증시 하락 전인 코스피 2,600pt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 당사는 국내 증시의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1) 미국 채권 발행 이벤트를 무리 없이 넘기고, 2)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어필(또는 그 시행), 자산시장(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에 대한 부양 의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그리고 경험적으로 (2)가 실현될 가능성은 매년 2월에 높아지기 때문에(중국 양회를 앞두고), 2월은 외국인 자금 유입과 지수 상승 가능성을 보다 높게 생각

이익 모멘텀 좋은 종목들을 베스트로 가져가면 안정적 성과 낼 수 있음



주 : 이익 모멘텀 rank 방식 - 코스피 200 지수 내 투자 의견 중립 이상 종목 중 1. 이익수정비율(1M) 레벨 높고, 2. 이익수정비율(1M) 전주대비 개선된 폭 높고, 3. 목표주가 상향률(1M) 높은 종목 순)
자료 : Quantwise, SK증권

강한 반등세 시현할 수 있을 때 낙폭 과대 업종 보자



자료 : Quantwise, SK증권



Part 2.

그림으로 보는 Top to Bottom

1. Macro Core 3 Point

SK증권 리서치센터

● Core Point 1: 중국 1년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동결

- 중국 인민은행, 1년물 MLF 금리를 2.5%로 동결.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 컨센서스에 상반된 결과. 이로 인해 중국 당국의 통화정책 신뢰성 문제 제기. 기준 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LPR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져

● Core Point 2: 중국 경제 지표 둔화

- 중국 4분기 GDP 성장을 YoY 기준 5.2% 기록해 소폭 하회. 12월 소매 판매는 YoY 기준 7.4%로 컨센서스 대비 0.6% 크게 하회. 이미 중국 경제의 디플레 우려가 상당한 상황 속 컨센서스와 상반되는 금리 결정에 부진한 경제 지표가 이어지며 위험 자산 회피 심리 강화

● Core Point 3: 미국 대선 경선 시작

- 첫 경선 무대 아이오와 코커스로 미국 대선 캠페인 시작. 공화당 트럼프 50% 이상 지지 받으며 압승. 미국 주도 국제질서 해체 우려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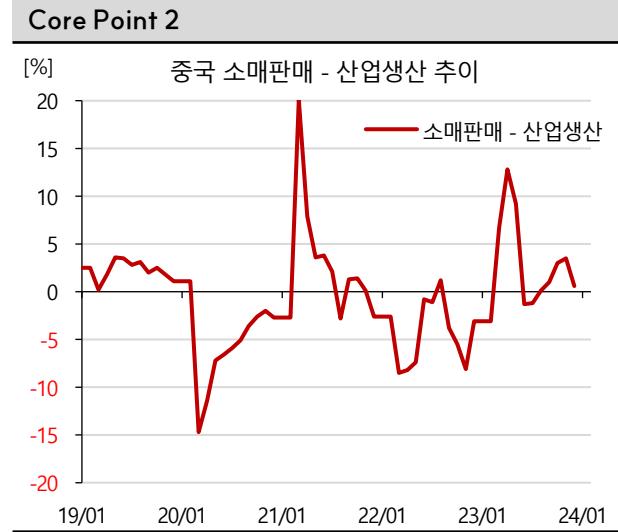


Core Point

중국 1년물 MLF 금리 동결



중국 경제 부진 우려 확대



자료 : Bloomberg, SK증권



Core Point

트럼프 전 대통령, 아이오와 코커스 압승



지정학 리스크 확대

자료 : 연합뉴스, SK증권

자료 : Bloomberg,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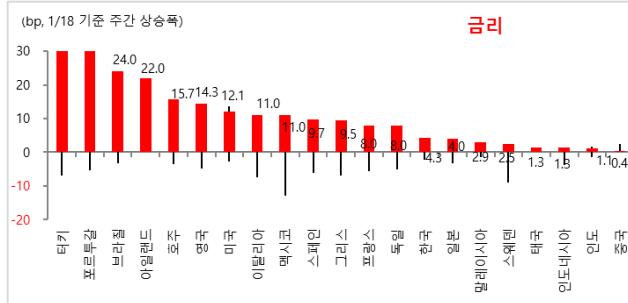
2. FICC Core 3 Point

SK증권 리서치센터

- 주간 금리는 여전한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 구성원들의 연이은 경고성 발언으로 상승.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블랙아웃을 앞두고 이어진 연준 구성원들의 매파적 발언과 견조한 소비의 영향으로 12.1bp 상승해 4.1%대 기록
 - 유가는 미국-후티 충돌 불구 중국 발 수요 우려가 지속되며 70달러 초반 유지. 환율은 중국 MLF 금리 동결 이후 달러 선호 심리가 살아난데 따른 원화 약세로 25원 가까이 급등해 1340원대 근접

금리

1) 글로벌 금리 주간 상승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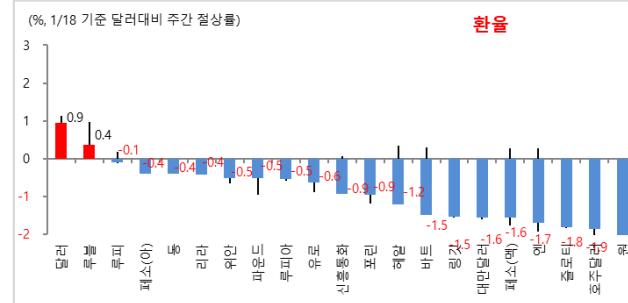
2)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자료 : Bloomberg, SK증권

화율

1) 글로벌 달러대비 주간 절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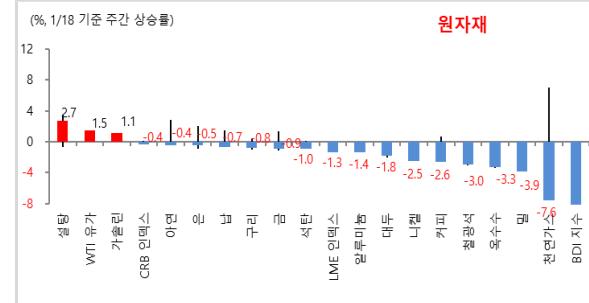
2) 원달러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 Bloomberg, SK증권

워자지

1) 주요 원자재 주간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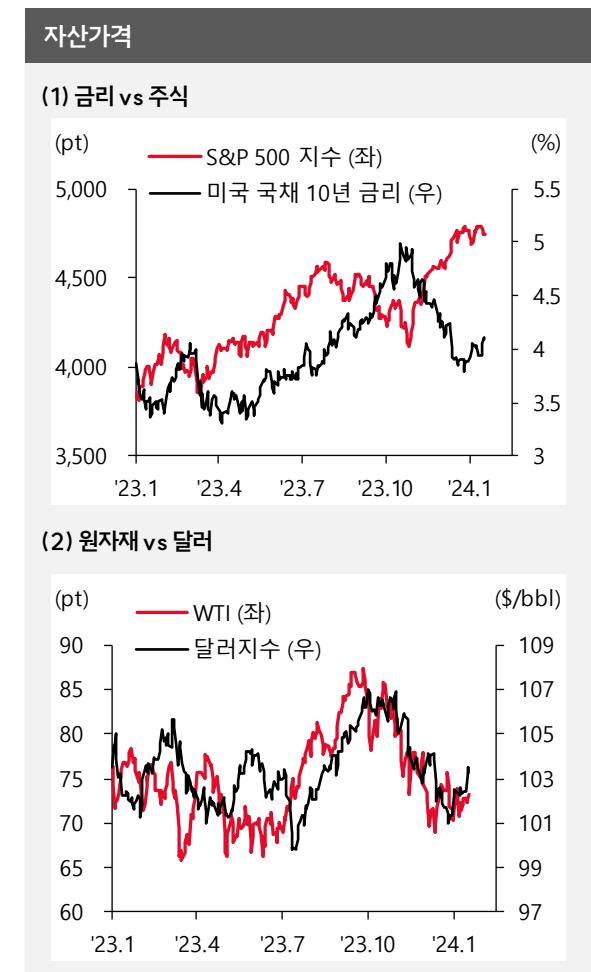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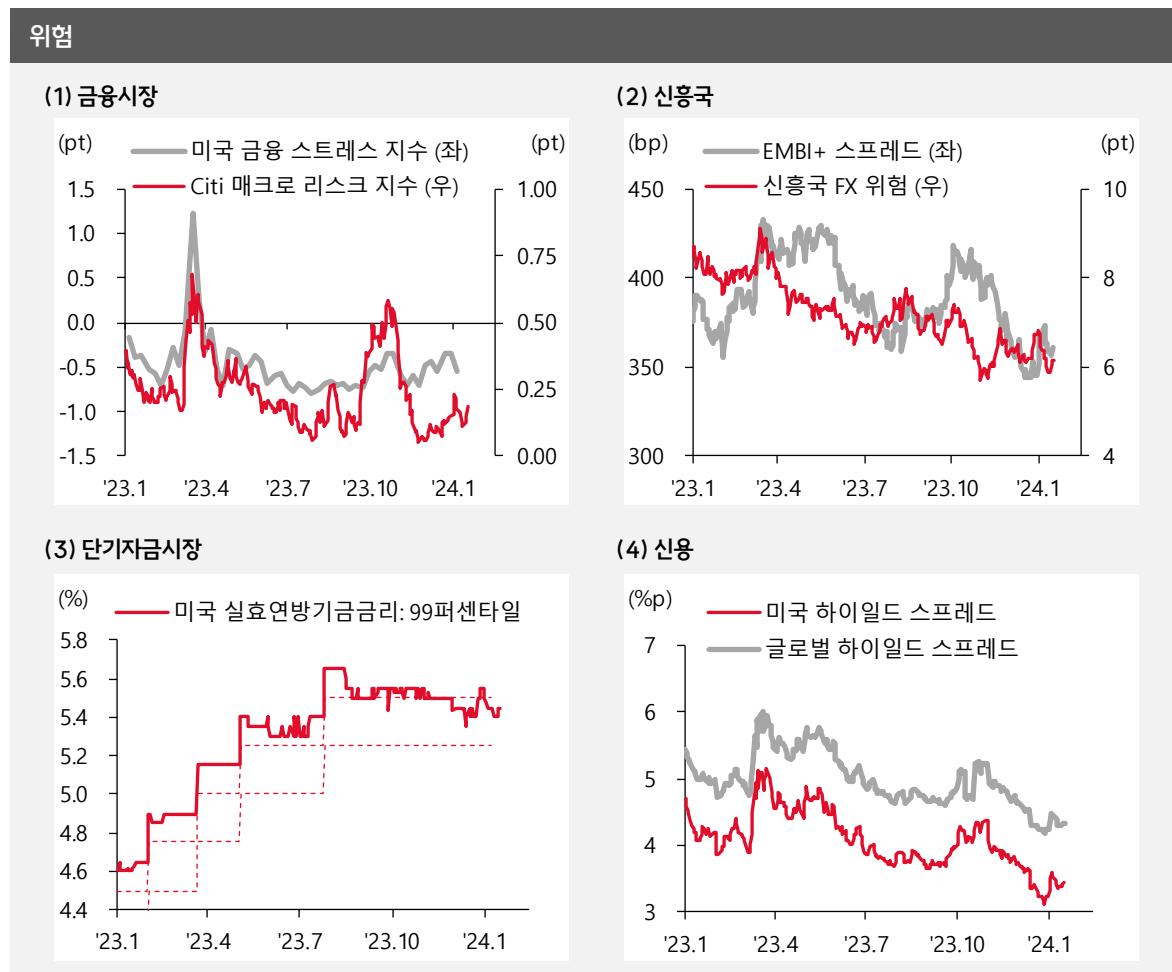
2) 국제유가변동(WTI 기준)



자료 : Bloomberg, SK증권

3. 위험과 자산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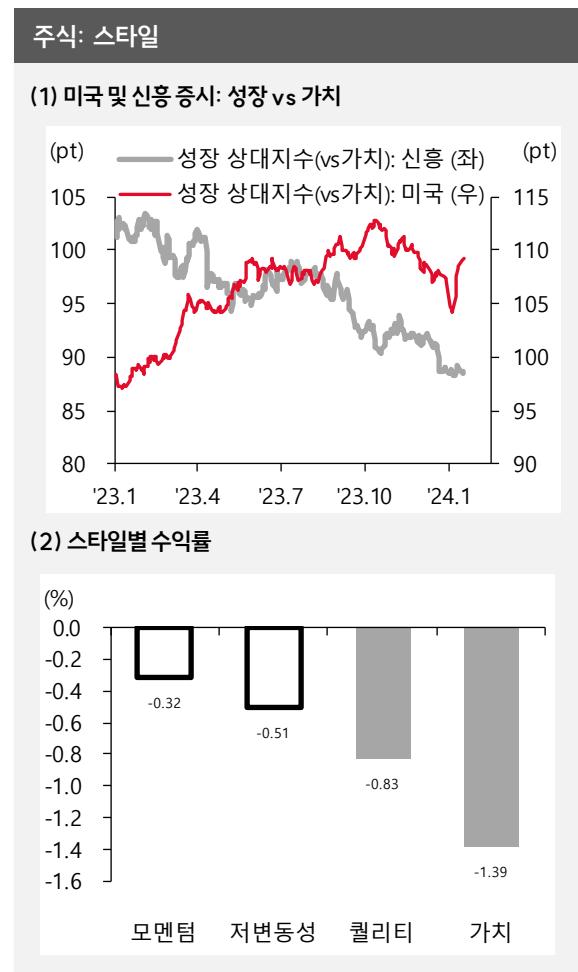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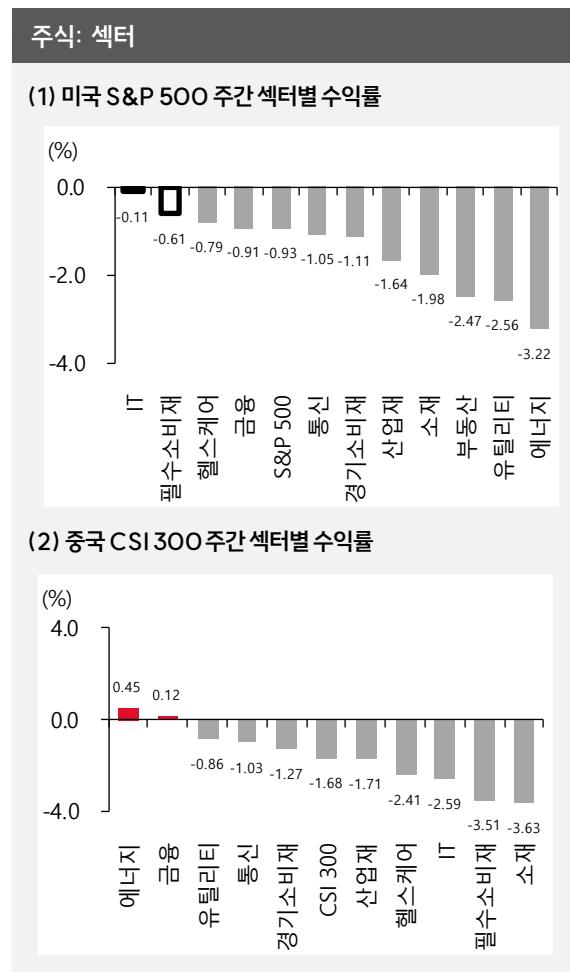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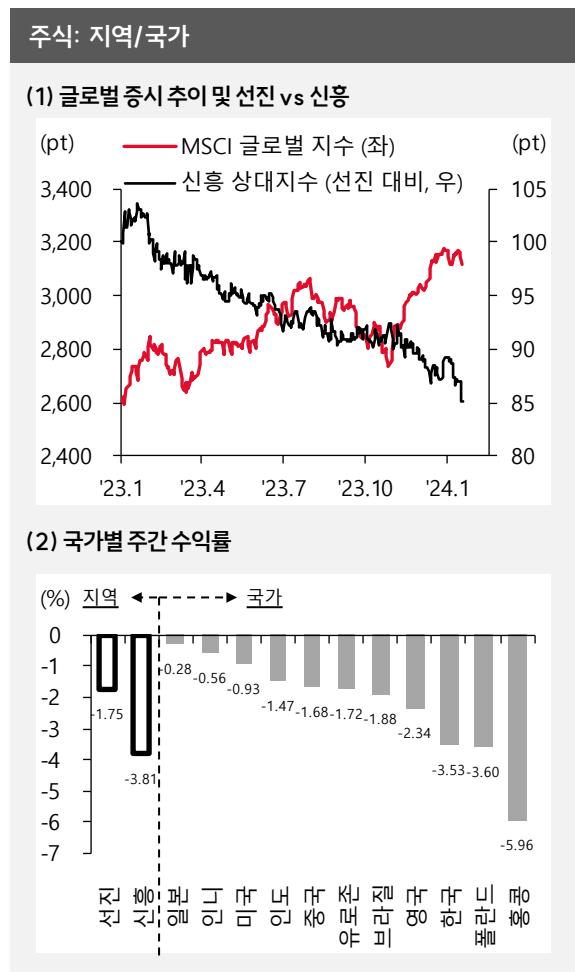
- 미국 단기자금시장 위험은 이제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음. 안정적인 상태 유지 중. 다만 미국 금리 상승으로 달러가 오르면서 신흥국 환 위험이 전주 대비 약간 높아졌고 주식, 크레딧 등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약화



4. 글로벌 주식시장: 가격

SK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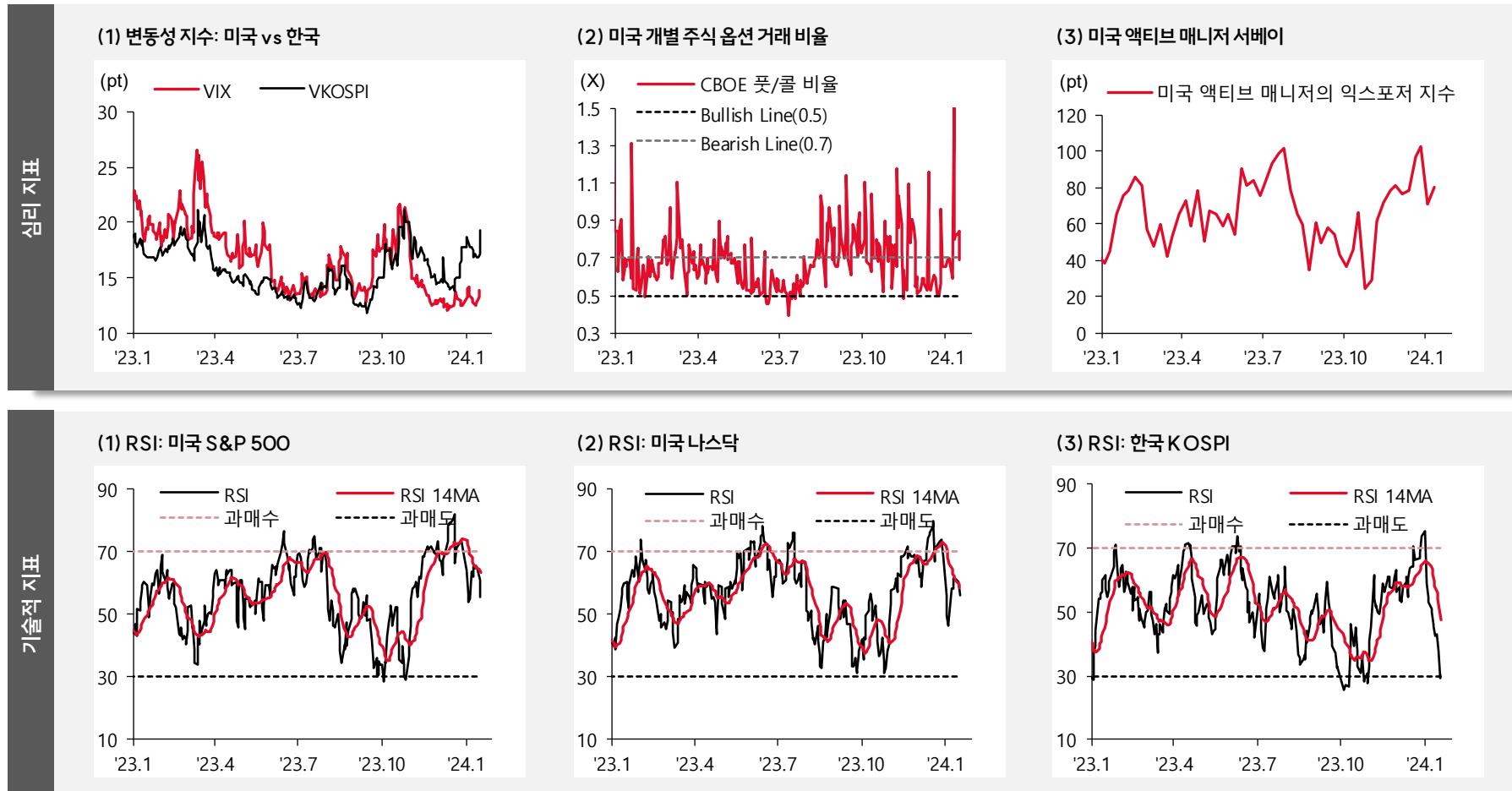
-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진. 홍콩 증시는 4일 간 무려 6%나 하락. 펀더멘털 이상의 금융상품 관련된 수급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미국 증시에서는 테크가 선방. 금리 인하 기대 뒤로 밀리며 경기민감 및 가치 스타일 낙폭 컸음



5. 글로벌 주식시장: 심리와 기술적 지표

SK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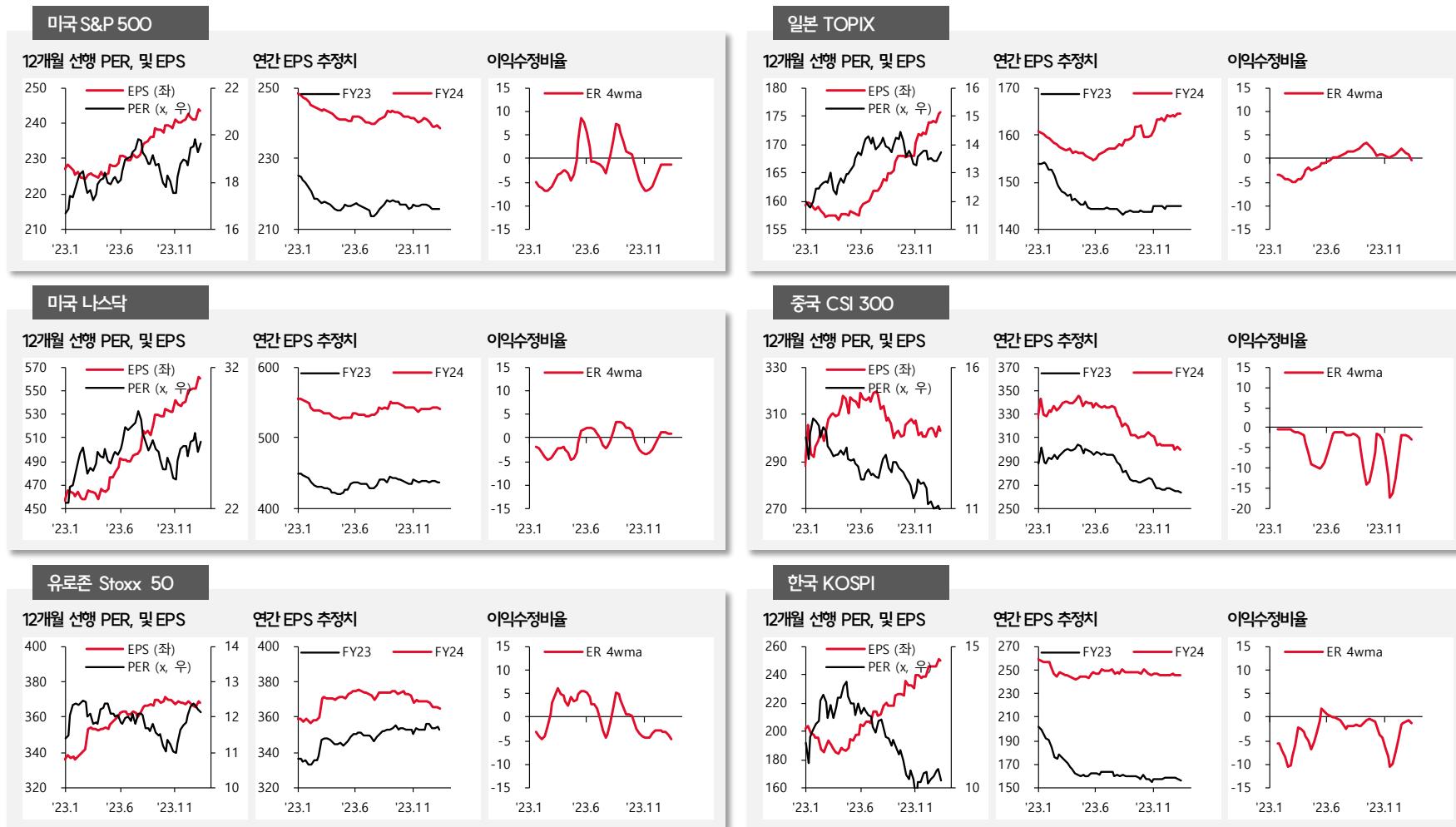
- 증시 변동성 계속 높은 상황. CBOE 뜻/콜 비율은 계속 Bearish Line을 상회 중. 그만큼 투자 심리가 썩 좋지 않다는 의미
- 기술적 지표 상 국내 증시는 과매도권에 진입. 이제는 적어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



6. 글로벌 주식시장: 이익과 밸류에이션

SK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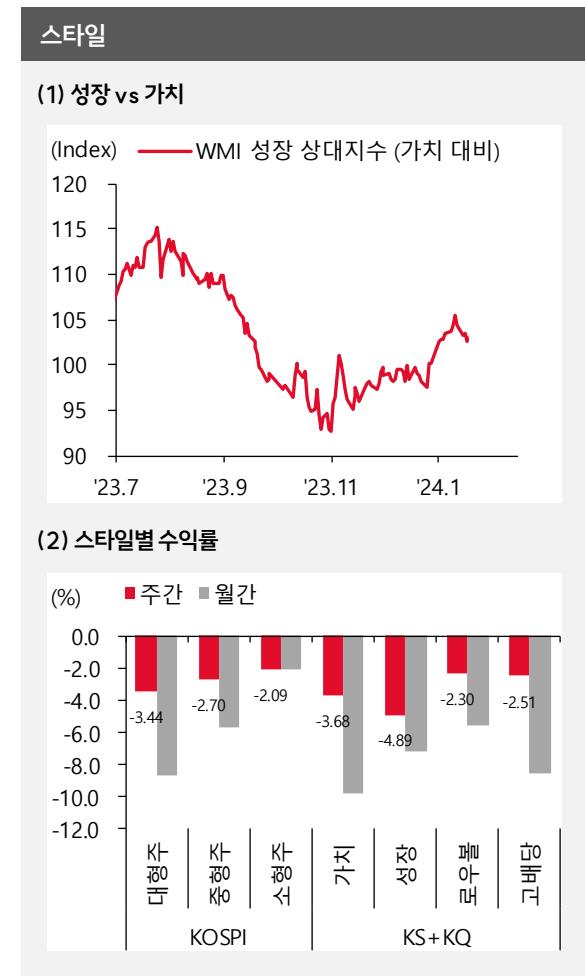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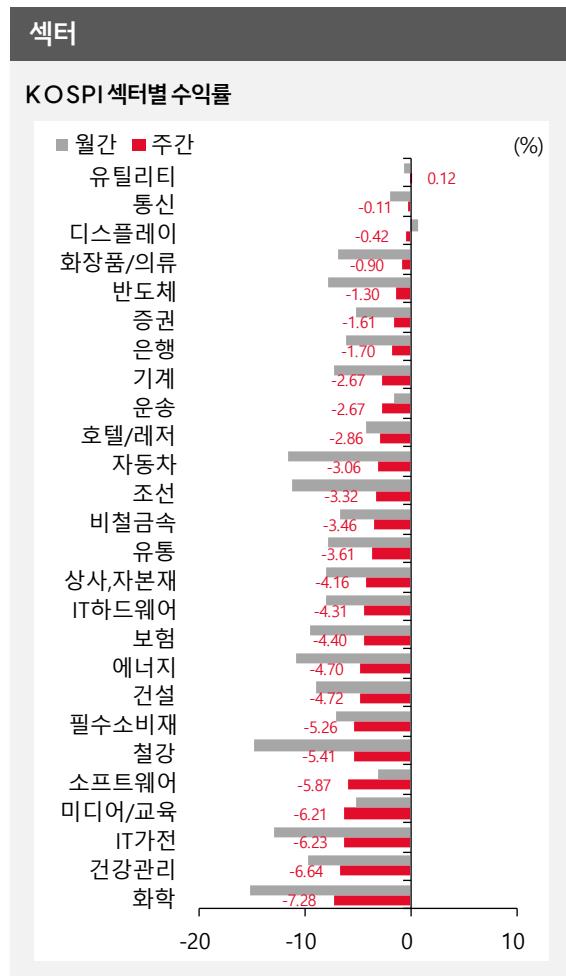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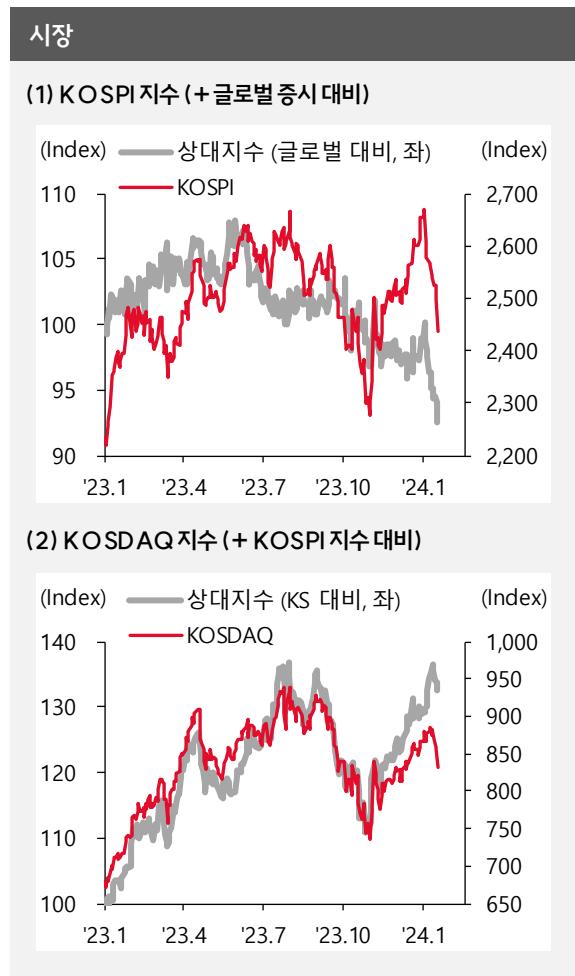
-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24년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음.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는 데는 엔화 약세도 기여. 그러나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국가 단위에서 홀로 이익 모멘텀이 좋다는 것이 투자 포인트가 되었을 것



7. 국내 주식시장: 가격

SK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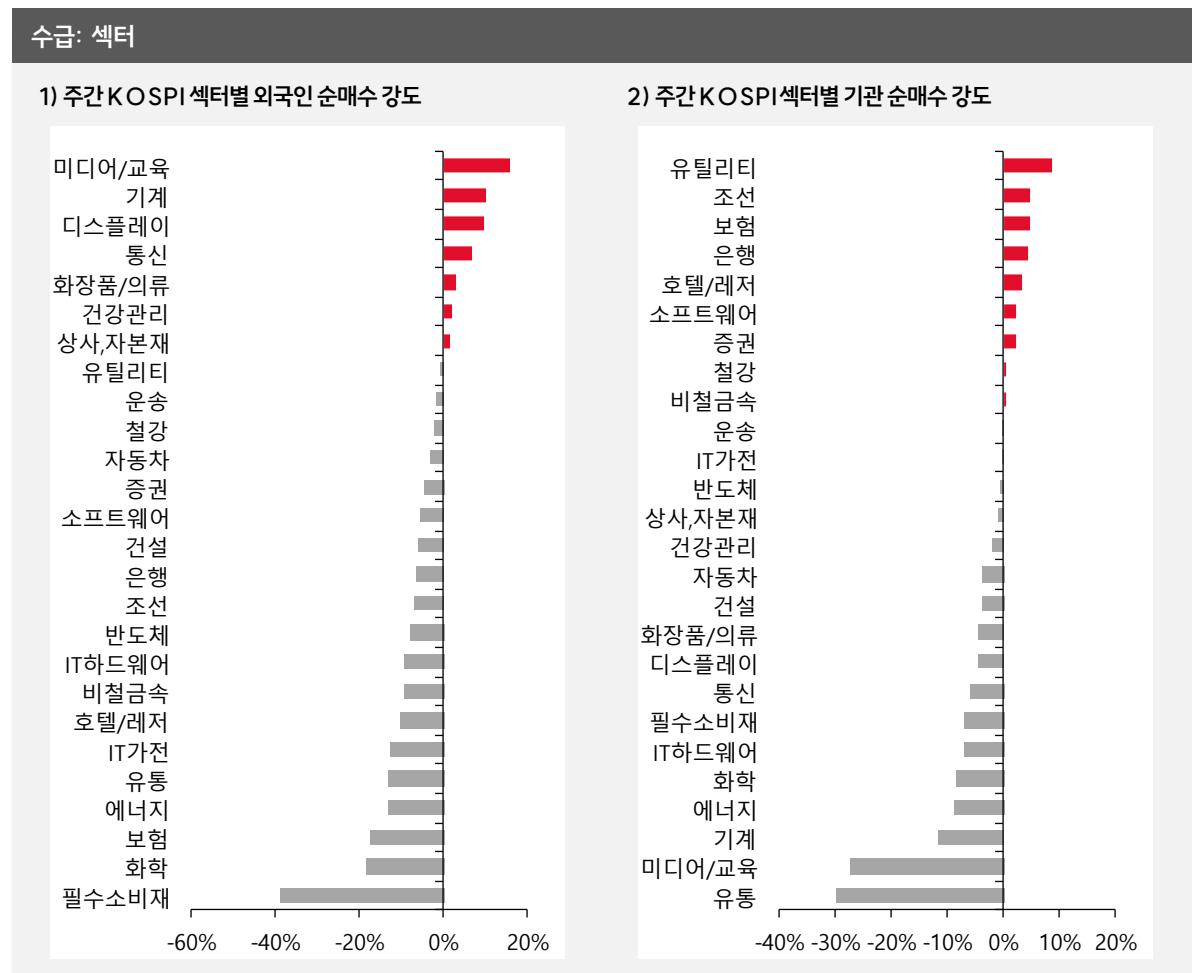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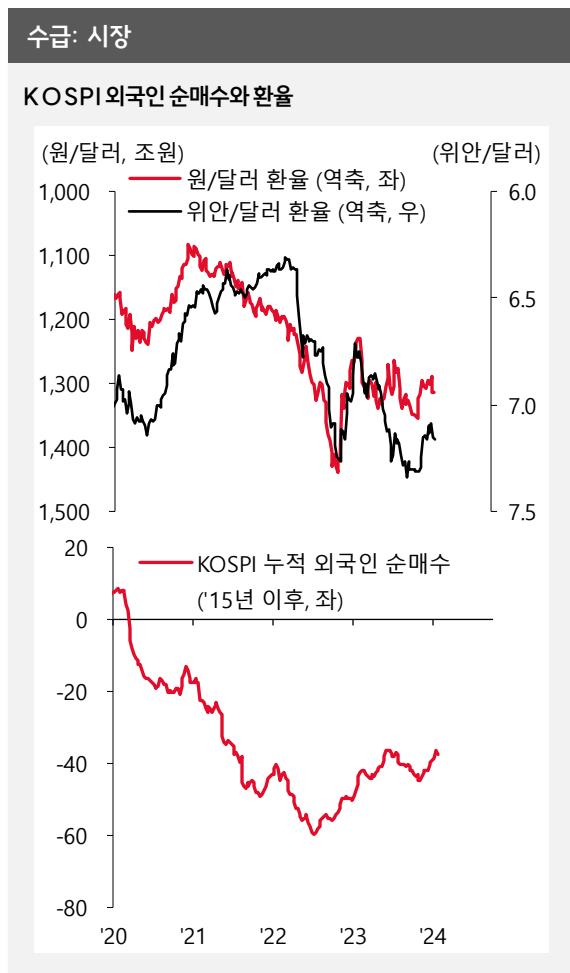
- 코스피는 중국과 맞물려 글로벌 증시 대비 크게 언더파운드. 외국인 자금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코스닥도 잘 버티다가, 결국 트럼프의 코커스 선전에 2차전지 투심 약화되며 낙폭 커졌음. 유tility와 통신이 선방. 외인 자금 유입 이어지는 디스플레이도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 기록 중



8. 국내 주식시장: 수급

SK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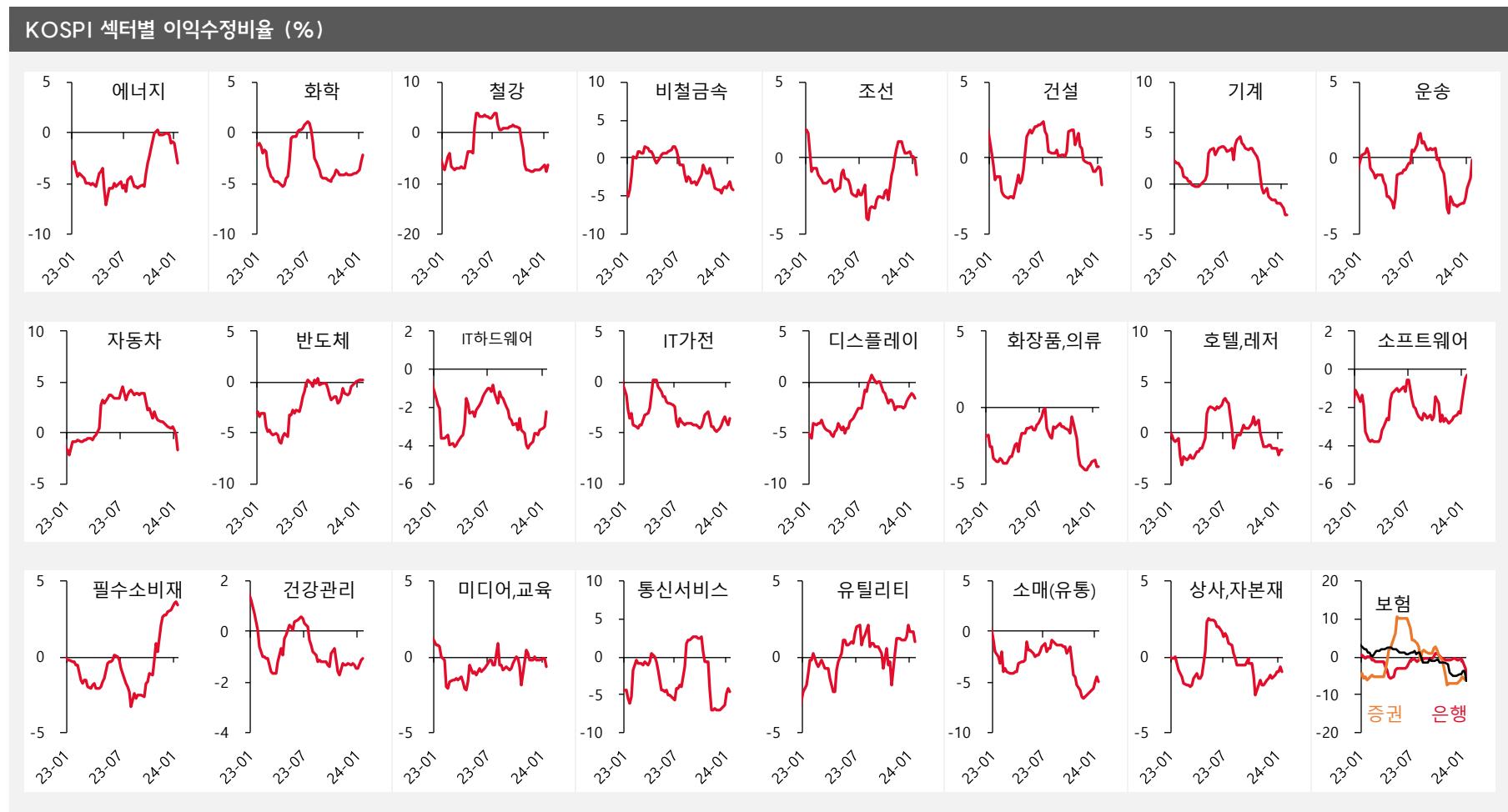
- 외인이 현물은 별로 안 팔았지만 지난 3일부터 선물을 주구장창 순매도 중. 전주에는 1.9조, 금주에는 월~수요일까지 1.5조 순매도. 그나마 18일 중국 증시 부양성 자금 유입되면서 안정 찾고 국내 증시도 과매도 시그널 확인되면서 외국인이 13거래일 만에 선물 순매수 기록(+130억)



9. 국내 주식시장: 이익

SK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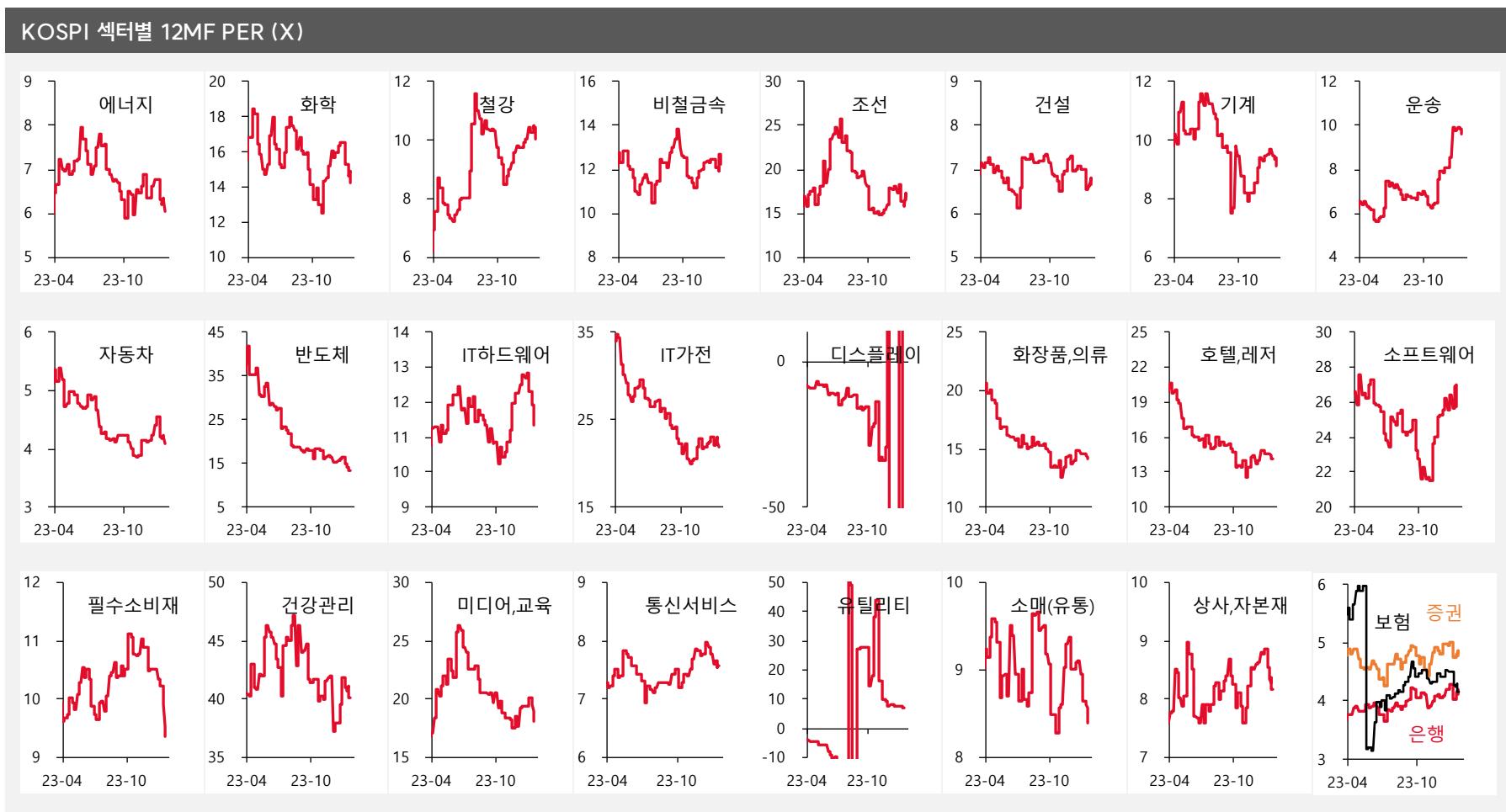
- 이익수정비율이 새로이 (-)로 진입한 업종에 조선과 자동차가 있음. 실적 시즌을 앞두고 아주 가파른 속도로 내려가는 중. 기계 이익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나 이는 중국 익스포저 높은 기업 또는 신재생 관련 기업 한정인 것으로 보임



10-1.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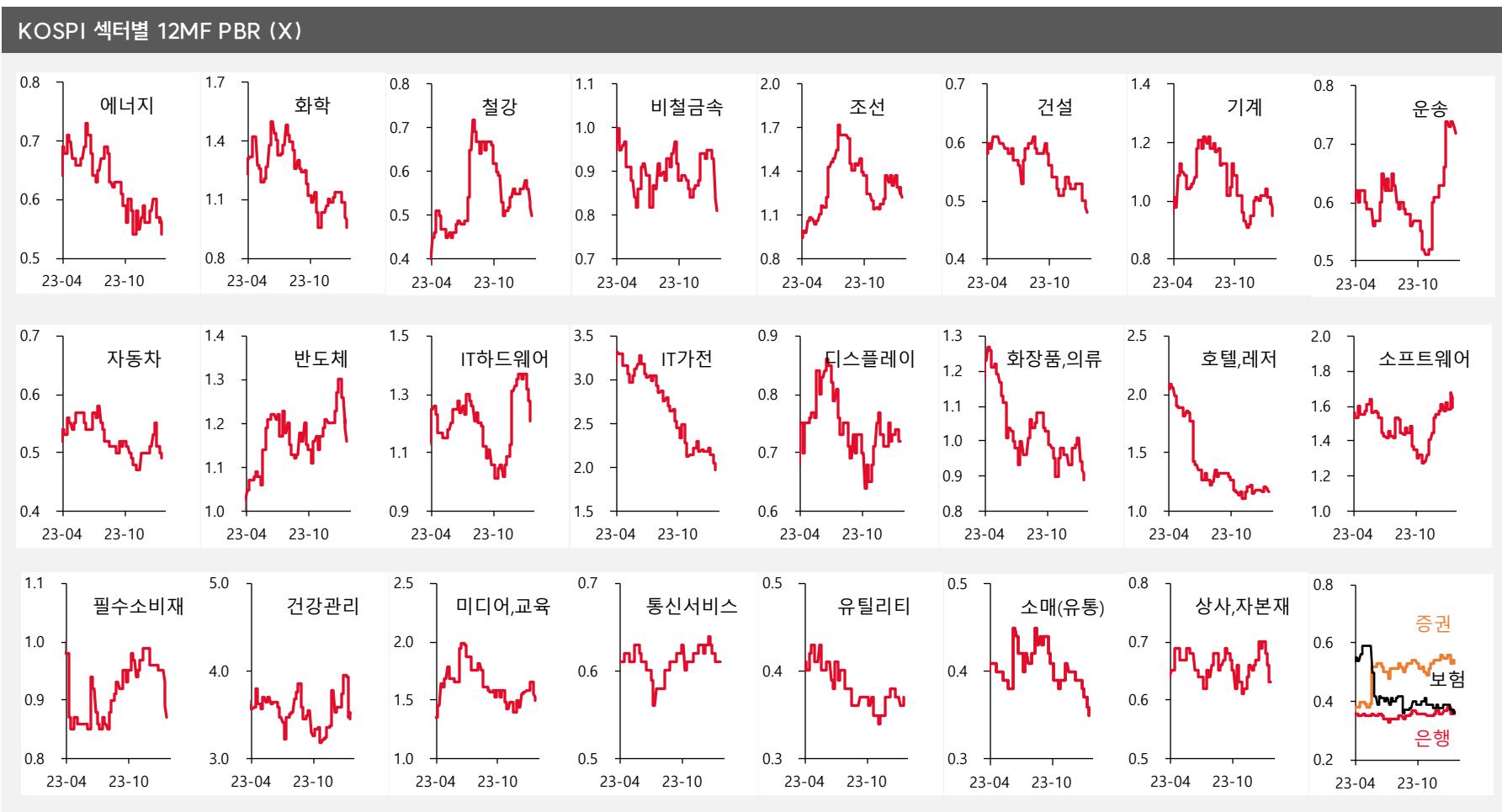
SK증권 리서치센터

- 경기민감 업종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 밸류에이션 콜이 가능한 업종들이 다수 있는 듯. 소프트웨어는 금주 조정이 컸음에도 밸류에이션의 움직임이 거의 없음. 이익 전망에 대한 확인 필요



10-2.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SK증권 리서치센터



11. 국내 주식시장: 종목

SK증권 리서치센터

- 하나투어, HD현대일렉트릭 등 이익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이 금주 크게 오르는 모습
- HD현대일렉트릭은 이미 2주 전부터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는데 CEO 간담회 이후 이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진 듯
- 하나투어는 외국인보다도 기관이 관심 많은 종목. 최근 지방 공항 출발 여행 상품의 인기가 높아진 점이 이익 모멘텀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LCC 주가 상승과 비슷한 로직

KOSPI 200 주간 종목 동향: 이익 모멘텀 상위

순위	종목코드	종목명	섹터	시총 (조원)	12m fwd. EPS (x)	투자의견	목표주가 (원)		이익수정비율 (%)		주가 수익률 (%)			수급주체별 주간 순매수강도: 코스피 종목 내 백분율 (높을수록 수급 강함)		
							현재	-1W	현재	-1W	1W	1M	YTD	외국인	기관	개인
1	A039130	하나투어	호텔,레저서비스	0.94	15.62	매수	69,667	62,667	50.0	33.3	3.5	13.8	12.7	29%	91%	10%
2	A267260	HD현대일렉트릭	기계	3.51	12.52	매수	111,667	108,273	30.8	7.7	8.7	15.3	18.5	97%	42%	7%
3	A073240	금호타이어	자동차	1.51	10.02	매수	6,525	6,220	25.0	25.0	-2.4	-4.6	-2.8	72%	58%	35%
4	A000210	DL	화학	1.08	5.39	매수	66,667	66,667	66.7	66.7	0.6	2.0	-0.2	50%	68%	39%
5	A161390	한국타이어앤테크놀	자동차	5.83	6.26	매수	58,333	57,417	25.0	8.3	6.7	5.3	3.7	22%	94%	8%
6	A128940	한미약품	건강관리	4.08	27.12	매수	408,042	403,837	15.0	15.0	-5.9	0.1	-7.9	51%	7%	87%
7	A271940	일진하이솔루스	자동차	0.94	114.58	매수	39,300	35,533	0.0	0.0	-2.3	12.9	-1.7	63%	71%	27%
8	A018260	삼성에스디에스	소프트웨어	12.90	15.98	매수	204,091	204,091	18.2	18.2	0.4	-0.8	-1.9	7%	97%	65%
9	A014680	한솔케미칼	화학	2.37	17.4	매수	263,333	263,333	0.0	-16.7	-1.2	-3.2	-7.9	95%	21%	13%
10	A079550	LIG넥스원	상사,자본재	2.67	13.55	매수	136,438	136,438	6.3	-6.3	-2.6	-12.2	-7.1	25%	83%	28%
11	A402340	SK스퀘어	반도체	6.59	9.55	매수	65,667	64,143	0.0	0.0	-2.8	-5.4	-9.9	37%	82%	21%
12	A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건강관리	53.38	52	매수	1,022,105	1,016,842	25.0	12.5	-0.1	7.0	-1.3	90%	98%	1%
13	A161890	한국콜마	화장품,의류,완구	1.19	12.62	매수	72,286	71,429	14.3	7.1	-4.4	-3.7	-2.8	84%	28%	42%
14	A003230	삼양식품	필수소비재	1.47	10.86	매수	270,000	262,000	0.0	0.0	-7.2	-10.6	-9.4	91%	20%	23%
15	A009420	한울바이오파마	건강관리	1.87	142.36	매수	47,857	47,857	0.0	0.0	-10.1	4.5	-19.3	95%	56%	9%
16	A300720	한일시멘트	건설,건축관련	0.79	4.47	매수	17,000	17,000	0.0	0.0	-4.0	-11.1	-10.8	60%	54%	45%
17	A0124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사,자본재	7.16	14.33	매수	160,615	160,615	0.0	0.0	-0.4	12.5	13.6	40%	94%	5%
18	A078930	GS	에너지	3.75	2.57	매수	55,333	56,400	16.7	0.0	0.3	-4.3	-1.2	86%	28%	39%
19	A028260	삼성물산	상사,자본재	21.42	8.98	매수	169,000	169,000	20.0	20.0	-5.1	-10.9	-10.9	88%	27%	26%
20	A007310	오뚜기	필수소비재	1.57	8.63	매수	600,000	600,000	100.0	100.0	-2.0	-1.4	-2.1	51%	69%	38%

주: 코스피 200 지수 내 투자의견 종립 이상 종목 중 1. 이익수정비율(1M) 레벨 높고, 2. 이익수정비율(1M) 전주대비 개선된 폭 높고, 3. 목표주가 상향률(1M) 높은 종목 순)

자료 : SK증권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art 3.

주간
Check Point

주간 경제 캘린더

SK증권 리서치센터

일자	주요 지표 및 일정	실제	예상	이전
1/15 (월)	유로존 산업생산 (MoM%) (11월)	-0.3	-0.3	-0.7
	독일 GDP (YoY%) (23년)	-0.3	-0.3	1.9
일정		실적		
1/16 (화)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 (pt) (1월)	-43.7	-5.0	-14.5
	유로존 ZEW 경기기대 (pt) (1월)	22.7	21.9	23.0
	독일 소비자물가(확) (YoY%) (12월)	3.7	3.7	3.2
	독일 ZEW 경기기대 (pt) (12월)	15.2	12	12.8
일정		실적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HDFC, PNC	
1/17 (수)	미국 산업생산·소매판매 (MoM%) (12월)	0.1 0.6	0.0 0.4	0.2 0.3
	미국 NAHB 주택시장 (pt) (12월)	44	39	37
	중국 GDP (YoY%) (4Q)	5.2	5.3	4.9
	중국 산업생산·소매판매 (YoY%) (12월)	6.8 7.4	6.6 8.0	6.6 10.1
	중국 고정자산투자 (YoY%) (YTD)	3	2.9	2.9
	유로존 소비자물가(확) (YoY%) (12월)	2.9	2.9	2.4
	유로존 균원 소비자물가(확) (YoY%) (12월)	3.4	3.4	3.6
	영국 소비자물가 (YoY%) (12월)	4.0	3.8	3.9
일정		실적	찰스슈왑, US뱅코프	
1/18 (목)	미국 필리델피아 연은 제조업활동 (pt) (1월)	-10.6	-7.0	-10.5
	미국 건축허가(잠)·주택착공 (백만건) (12월)	1.49 1.46	1.48 1.43	1.47 1.56
	일본 산업생산(확) (MoM%) (11월)	-0.9	-0.9	1.3
일정		실적	TSMC, 힌두스탄, 트루이스트, 아메리칸항공	
1/19 (금)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잠) (pt) (1월)		68.8	69.7
	미국 기존주택판매 (백만건) (12월)		3.82	3.82
	일본 소비자물가 (YoY%) (12월)			2.8
	독일 생산자물가 (YoY%) (12월)		-8.0	-7.9
	일정	실적	릴라이언스, 스테이트스트리트, SLB	

일자	주요 지표 및 일정(예정)	예상	이전
1/22 (월)	중국 LPR 1년금리 결정 (%) (1월)		3.45
	일정	실적	
1/23 (화)	미국 CB 경기선행 (MoM%) (12월)		-0.5
	한국 생산자물가 (YoY%) (12월)		0.6
1/24 (수)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 (1월)	-0.1	-0.1
	일정	실적	マイクロ소프트, 넷플릭스, GE, 존슨 앤존슨, PG, 버라이즌, 3M, TII
1/25 (목)	미국 제조업·서비스업 PMI (pt) (1월)		47.9 51.4
	유로존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속) (pt) (1월)		44.4 48.8
	한국 소비자신뢰 (pt) (1월)		99.5
	일본 수출 (YoY%) (12월)		-0.2
	일본 무역수지 (십억달러) (12월)		-780.4
	독일 마켓 제조업 PMI(속) (pt) (1월)		43.3
	일정	실적	테슬라, IBM, ASML, SAP, AT&T, 씨게이트
	미국 GDP (QoQ연율%) (4Q)	1.8	4.9
1/26 (금)	미국 내구재 수주·근원 내구재 수주 (MoM%) (12월)	-0.5	5.4 0.4
	미국 신규주택판매 (천건) (12월)	650	590
	유로존 ECB 통화정책회의 (%) (1월)	4.50	4.50
	독일 Ifo 기업환경 (pt) (1월)		86.4
	한국 GDP (YoY%) (4Q)		1.4
	일정	실적	인텔, 비자, 스타벅스, LVMH, 디올, 유니온퍼시픽, 노스롭그루먼, 넥스트에리에너지, WD
	미국 PCE·근원 PCE 물가 (YoY%) (12월)	2.6 3.2	2.6 3.2
	미국 잠정주택판매 (MoM%) (12월)		-1.2
일정	일본 경기선행(확) (pt) (1월)		108.9
	독일 Gfk 소비자동향 (pt) (2월)		-25.1
	실적	캐터필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